



# 지존자리 지키는 라미네이팅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꼽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삼성, 현대, 포스코, LG, SK 등을 꼽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분야별 1위를 꼽을 때 과연 몇 개의 기업이 꼽힐 수 있을까.

그런데 인쇄와 관계가 깊은 라미네이팅 분야에서 세계 제일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 바로 (주)지엠피(대표 김양평).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지엠피가 어떻게 세계 제일의 기업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 핵심기술 개발 · 핵심부품 자체 생산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에 위치한 (주)지엠피는 400여명의 임직원들이 세계 제일의 라미네이팅 관련 전문기업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여념이 없다.

1985년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라미네이팅 기계를 시작으로 라미네이팅 필름, 주변 기기 등 라미네이팅 관련 제품을 생산, 전 세계 100여개 국에 생산제품의

90%를 수출하는 지엠피는 라미네이팅 기계부문에서도 세계시장 점유율 70%를 확보하고 있다.

라미네이팅 관련 전문기업으로 세계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엠피는 기계공장, 압출공장, 라미네이팅 필름 파우치 공장, 슬리팅공장, 코팅/프린팅 공장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핵심기술의 개발과 핵심부품의 자체 생산은 품질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원가 절감보다는 품질안정 때문. 역시 세계시장에서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품질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국내에서는 라미네이팅 활용도가 낮은 편이지만 외국에서는 각종 인쇄물, 사진, 도서, 포장, 신분증 및 보안분야, 서류의 장기 보존, 사진 및 포스터 광고시장 등을 비롯해 가정용 및 사무실용도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해외 3개 지사와 33개 대리점 망 형성**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고 있는 지엠피

는 세계 각국에 3개 지사와 33개 해외 대리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영업망 형성은 라미네이팅 분야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다.

지엠피는 GMP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 영국, 인도에 현지 생산 및 판매, 서비스를 위한 현지 지사를 설립하는 한편 그리스와 스페인, 이태리, 덴마크, 스웨덴 등에 합작회사를 설립 운영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전 세계 30여개국에 GMP 브랜드로 전문 대리점 망을 구축하여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GMP 브랜드로 5천만달러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1996년 10월 라미네이팅 분야에서 최대의 경쟁사였던 세계 최대의 사무 주변기기 제조회사인 미국의 GBC사와 기술개발, 생산, 마케팅, 판매를 위한 총괄 동맹을 맺은 후 GBC사의 합작투자(GBC 지분 33.33%)를 유치하여 GBC사의 전 세계 20여개 지사 망을 통해 현재 연간

지엠피는 GMP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 영국, 인도에 현지 생산 및 판매, 서비스를 위한 현지 지사를 설립하는 한편 그리스와 스페인, 이태리, 덴마크, 스웨덴 등에 합작회사를 설립 운영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전 세계 30여개국에 GMP 브랜드로 전문 대리점 망을 구축하여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GMP 브랜드로 5천만불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5천만불을 안정적으로 제조, 수출하고 있다.

기계 외에도 필름, 주변기기까지 공급  
지엠피의 라미네이팅 기계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신제품 개발능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라미네이팅 기계는 1997년도 20만대 생산에 26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1998년에는 27만7천대 생산에 370억원의 매출로 전년대비 40%의 신장률을 기록하면서 단일 생산공장으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라미네이팅 기업의 위치에 올라섰다. 지엠피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라미네이팅 기계군은 대량 인쇄산업용 롤 라미네이터, 그래픽 전문 롤 라미네이터, 업무용 롤 라미네이터, 문서용 파우치 라미네이터, 사진용 파우치 라미네이터, 전문가 및 업소용 파우치 라미네이터, 오토매틱 라미네이터, 가공업소용 롤 라미네이터 등이 있다.

또한 라미네이팅 필름은 연간 2만4천



GMP 강남전시장과 복도에 걸린 인증서 및 상장들.

## GMP는

- 1985 대산기계 설립
- 1986 (주)대산프라스틱계로 법인 전환
- 1988 필름 재단공장 신설
- 1989 필름 압출공장 신설
- 1990 상공부장관 표창 수상
- 1991 (주)지엠피로 상호변경
- 1992 1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1994 GMP 코스닥 상장
- 1995 독일·영국 현지법인 설립
- 파주 문발리 공단으로 이전
- 1996 벤처기업상 수상
- 1997 인쇄 가공공장 준공
- 1998 기술부설연구소 설립
- 1999 RUTHENOX 히터 생산 설비 완공
- 2000 World Best Awards 제품력부문
- 다이아몬드상 수상
- 5천만불 수출탑 수상
- 2001 필름공장, 코팅공장 및 와이드 포맷
- 라미네이터 생산공장 준공
- 2003 ISO 9001 개정 승인



톤 규모를 생산, 판매하여 단일 생산공장으로는 미국의 GBC와 당당히 경쟁하는 한편, 현재 신규 필름공장을 건설하여 세계 라미네이팅 필름 수요의 30%를 공급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신규공장은 첨단 기능의 초고속 정밀 자동제어설비를 갖추고 고부가가치 광폭 필름을 생산함으로써 생산성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되어 필름사업의 수익성 개선은 물론 연간 500억 이상의 매출신장이 예상되어 매출액 1천억 시대를 열어가는 기반을 마련했다.

라미네이팅 필름군에는 열접착 라미네이팅 필름, 콜드 라미네이팅 필름, 오버레이 코팅 필름 등이 있다. 이밖에도 주변기기로는 라미네이팅 트리머, 디스플레이 시스템, 라미네이팅 액세서리(핀치, 커터, 클립), 전자 시스템 등이 있다.

### 기술을 중시하는 기업

지엠피는 기술을 중시하는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김양평 사장이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 개발에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기술개발은 창립 당시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다.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기술중시 경영을 바탕으로 매년 20여건의 신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발명특허도 41

건, 실용신안 50건, 의장등록 44건, 상표등록 228건 등을 보유하게 됐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의지를 가지고 1998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지엠피는 이후에도 필름연구를 위한 필름연구소도 설립해 현재 23명의 연구원이 기계파트와 필름파트로 나뉘어 국제 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서가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지엠피의 사업방향은 이 모든 기술을 발전시켜 세계 제일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과 새로운 히터(발열)사업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히터사업은 현재까지 라미네이팅 기계를 만든 것을 바탕으로 응용된 분야여서 이 분야 또한 세계 제일을 꿈꾸고 있다.

### 매년 해외 전시회와 기술 세미나 개최

지엠피는 세계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으로 각종 해외 전시회 참가는 물론 매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회의 경우 매년 몇 개의 전시회에 참가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1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페이퍼월드 전시회에 참가해 파우치 라미네이터 시리즈 4종, 롤 라미네이터 시리즈 4종, 라미네이팅 필름 6종 등을 전시, 대한민국의 기술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제품 평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 상당한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지엠피의



▲ 방문객들이 GMP가 실시한 기술세미나에 참석해 신제품을 관람하고 있다.



▲ 연구개발의 산실인 기술연구소

▶ 파이오니아 8000BC



주요 사양

라미네이팅 속도	5-50m/min
최대 라미네이팅 규격	800×1100mm
최소 라미네이팅 규격	210×250mm
종이 두께	120-400g/m <sup>2</sup>
원고 적재 높이	750mm
라미네이트 제품 적재 높이	500mm
정격 전압	400V, 50/60Hz
소비전력	16kw, 32A
예열 시간	8분
히팅 시스템	열 교환기
엠보싱	선택사양

기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매년 말에 개최되는 기술세미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지엠피 본사에서 실시한 기술세미나 'International Lamination Seminar 2004'에는 세계 30여개국에서 60여명이 참석, 라미네이팅과 관련된 최고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지엠피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직접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국에서 참가한 인원들은 지엠피에서 체재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자비를 들여 방한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업적인 측면에서 신제품 발표회 등 외국인을 초청할 때는 체재비 등을 지원하지만, 지엠피의 기술세미나는 세계적인 기술과 제품을 볼 수 있는 세미나여서 외국인들이 참가해 보고 싶어 하는 세미나가 되었다.

지엠피는 외국 전시회는 물론 국내 전시회에도 적극 참가해 국내에서의 기반도 다져나갈 계획이다.

품질 좋고 경제적인 파이오니아 8000BC

지엠피의 다양한 라미네이팅 관련 제품군 중에서 인쇄업계에 적합한 기종으로 파이오니아(PIONEER) 8000BC가 있다.

이 기종은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콤팩트하고, 품질은 높고 경제적이다.

일반 라미네이팅 기계는 건조장치와 접착제 장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라인이 길고 높아 작업공간을 많이 필요로 했으나, 파이오니아 8000BC는 4.2×1.5×1.6m로 콤팩트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 작은 공간에서 깨끗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공간을 최소화해 임대료까지 절약할 수 있다.

최적의 운용을 위한 완전 디지털 컨트롤 시스템을 갖춘 이 기종은 고속 전자동 급지, 라미네이팅, 커팅 작업을 한번

에 수행할 수 있는 일체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속도는 OPP 단면 라미네이팅의 경우 분당 50m, 엠보싱의 경우 분당 20m가 가능하며, 전자동 삼지, 피어싱, 슬리팅, 에지 리와인더, 자동 버스트 재단기, 전자동 종이 정렬 적재 장치 등을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다.

이 기종의 특징은 원고의 말림이나 컬링을 방지해주는 장치, 적외선 센서, 라미네이팅 후 커팅된 종이 정렬장치, 최고급 진공 삼지장치, 원고적재대 이송레일 등이 장착돼 있어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기 작업 준비시간이 10분에 불과하고, 라미네이팅 후에는 별도의 건조시간 및 숙성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파이오니아 8000BC는 엠보싱된 롤러로 교체만 하면 엠보 라미네이팅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종으로 엠보싱 롤러 교체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된다. 이 밖에도 공해 배출 설비가 필요 없고, 전력 사용량도 적어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윤재호 부장〉